

남원시, 민생경제 종합대책 추진

미래 농생명산업 선도한다

민생안정 대책반 가동 · 263억원 규모 1월 제1회 추경예산 긴급 편성키로

남원시가 대통령 탄핵 정국 등 국내외 불확실한 상황으로 침체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민생안정을 위해 남원시 민생안정 대책반을 가동하고 263억원 규모의 민생경제 종합대책을 선제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는 최경식 남원시장(사진)이 민생안정 관련 간부회의를 소집해 소비침체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우려됨에 따라, 민생현장의 의견을 반영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긴급 민생경제 종합대책 마련을 주문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민생협장 간담회 등에서도 소상공인을 비롯한 기업, 농업인들이 현장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경영안정 지원을 포함한 각종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19일에는 시의회에서도 민생안정 지원금 지급을 신속하게 추진할 것을 요청했다.

이에 시는 지역 내 소비 촉진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시민 모두에게



1인당 30만원씩 총 230억원의 민생안정지원금을 남원사랑상품권 형태의 선불카드로 설 전에 지급할 방침이다.

또한 소상공인과 농업인 경영안정 지원, 기업 경쟁력 강화, 취약계층 생계안정 지원 등을 위해 33억원을 추가로 지원하는 등 총 263억원 규모의 민생경제 종합대책을 마련하였으며, 2025년 1월 제1회 추경예산을 긴급 편성할 계획이다.

특히 지역 내 소비 활성화를 위해 남원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사업에 20억원을 투입해 내년 1월 한 달간 지역사랑상품권 구매한도를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할인율은 10%에서 15%로 상향한다.

이밖에도 소비위축에 따른 매출 감소 등으로 경영 위기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 경영안정을 위해서는 11억원을 투입해 특별보증 대상(70→200명), 이차보전지원(3→4%), 영세소상공인 카드를 수수료 지원(50→100만원) 등을 확대한다.

또한 착한가격 업소 신규(28→32개소) 확대, 공공근로·대학생일자리·청년인턴 등 직접일자사업(595→650

명) 확대, 중소기업 수출 지원(8→10개사) 확대, 긴급복지지원 선정기준 완화(중위소득 75% 이하→중위소득 85% 이하), 외국인 계절근로자 확대 도입(465→623명)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당초 2025년 1월 인상 예정이었던 상수도요금은 인상 시기를 한시적으로 유예하고, 적극적인 재정집행과 배려형 눈꽃축제 성공 개최 등 생활인구 유입 확대 시책 추진에도 온 힘을 다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263억원 규모의 민생경제 종합대책 재원은 남원시의 어려운 재정 여건에도 불구하고 최경식 남원시장의 강한 의지로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마련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충당한다.”고 전했다.

한편 최경식 시장은 “시장 운영의 중심은 시민이고 최우선 목표는 민생안정에 있다고 강조하며, 시의회와 적극 협력해서 이번 민생경제 종합대책 예산 관련 조례 제·개정 및 추경 편성을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시,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공모사업 선정

남원시가 농식품부 대규모 스마트팜 창업단지, 전북자치도 농생명산업 선도지구 지정 등에 선정된 데 이어 농식품부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공모사업 선정에 잇따라 성공하며, 올해 788억원을 확보하면서 대한민국 미래 농생명산업 선도주자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번에 선정된 '스마트농업 육성지구'는 농식품부가 올해 7월 스마트농업육을 제정 후 올해 처음으로 지역단위 스마트팜 확산 거점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된 공모사업으로, 남원시는 도내에서 유일하게 선정되어 국도비 130억원을 포함해 200여원을 확보했다.

특히 본 사업은 기존 3년 단기 임대형 스마트팜을 보완하여 최대 10년(5+5년) 장기 임대형 스마트팜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청년농의 초기 투자비용 경감과 임대경영으로 청년농의 안정적인 창업 정착을 유도해 남원시에는 의미가 큰 사업으로 평가된다.

앞서 시는 올해 예코에너지 스마트팜 혁신단지 내 대규모 스마트팜 창업단지 240억원 확보(취·창업 지원), 지방소멸대응기금 스마트팜 혁신단지 166억원 확보(유통·가공단지), 친환경 에너지타운 182억원(레일 활용·미래농업 복합문화공간), 전북자치도 농



생명산업 선도지구 지정 등 4개 사업에 선정되어 588여원을 확보했다.

또한 시는 스마트농업을 미래 농생명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예코에너지 스마트팜 혁신단지에 대한 인·허가 의제 등 사전행정절차를 완료해 내년 상반기에 전북자치도로부터 농생명산업 지구지정 고시를 받아 규제완화 및 세제특례 등 인센티브를 적극 제공한다는 복안이며, 뿐만 아니라 시는 예코에너지 스마트팜 혁신단지 내 고부가가치 특화 품목인 바이오 작물 및 바이오 기업 원료 납품으로 농업의 미래 먹거리를 확보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예코에너지 스마트팜 혁신단지 60.1ha가 혁신 기업과 청년농 유지 및 각종 국가 공모사업, 시범사업의 테스트베드로 활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져 농업·농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남원=김기두 기자

봉황인재학당 통학 서비스 제공

임실군에향장학회, 입학생 등 · 하원 택시 운행 협약 체결

(재)임실군에향장학회(이사장 심민)가 지난 24일 2025년 봉황인재학당 입학생 등 · 하원 택시 운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가졌다.

이날 군수실에서 (유)임실군합동택시 김중원 대표와 임실개인택시단위조합 왕동열 조합장은 (재)임실군에향장학회 이사장인 심민 군수와 함께 협약식을 갖고, 봉황인재학당 학생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등·하원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이번에 협약을 맺은 택시는 관내 16대 정도로 2026년도까지 택시 이용이 필요한 입학생 60여 명을 대상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1일 1회 왕복 운행한다.

학기 중에는 각 학교에서 봉황인재학당까지, 방학 중에는 학생 거주 마을에서 봉황인재학당까지 운행하고, 수업 후에는 집까지 안전하게 학생들

을 귀가 시키는 통학 서비스를 제공한다.

2025년도 8년 차를 맞이하는 봉황인재학당은 안전하고 질 높은 교육 서비스를 제공해 농촌지역 학생들을 우수 인재로 양성하는 든든한 스승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봉황인재학당은 2025년도 입학생 200여 명을 지난 13일 선발 완료하고, 내년 1월 6일부터 2025학년도 수업에 돌입할 계획이다.

심민 군수는 “등·하원 택시 업무협약으로 학부모와 학생들이 안심하고 학습에만 집중할 수 있는 교육환경 구축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순창군, 농가당 최대 118만원 확대 공익직불금 지원

순창군은 농업인의 소득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한 기본형 공익직불금 군비 보조금 확대분 72억 원을 지난 24일 지급했다고 밝혔다.

군은 농업인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확립하기 위해 작년 관 조례를 제정하여 군비 확대 공익직불금 지급을 본격화했다. 기존에 전라북도가 시행 중인 농민수당(연간 60만 원)보다 확대된 지원 규모를 설정해, 2025년까지 소농 기준 연간 총 200만 원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군은 농업인의 경제적 안

정뿐만 아니라 지역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동시에 도모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2024년 국비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원대상자 중 순창군에 주소 두고 관내와 연접 농지를 경작하는 6,869농가로, 총지원 면적은 6,132ha에 달한다.

지원금액은 재배면적 소농기준 0.1~0.5ha까지는 100만원을, 3ha 한도 내에서 최대 118만원까지 차등 지급해 영세 농가에 대한 배려와 함께 규모화된 농가의 경쟁력 강화를 동시에 고려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지역 소식통

남원시, 내년도 후계농업경영인 신청 · 접수

남원시는 미래 농업 발전을 이끌어 나갈 2025년도 후계농업경영인 신청을 2024년 12월 18일부터 2025년 1월 31일까지 신청받는다.

남원시는 농가 인구 감소와 고령화 심화에 대응하여 남원의 농업을 이끌어 갈 인재를 발굴하고, 맞춤형 영농 기반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창업을 유도한다는 계획으로 홍보 및 안내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신청 자격은 신청년도 기준 만 18세 이상 만 50세 미만(1975년 1월 1일~2007년 12월 31일 출생자)이면서 영농에 종사한 경력이 없거나 10년 미만인 자이다.

또한 농업 관련 학과 졸업자, 농업계 고등학교 졸업자,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한 농업 교육기관에서 관련 교육을 이수한 자라면 신청할 수 있으며, 병역 미필자도 신청이 가능하다. 산업기능요원 편입 대상자가 아닌 경우 후계농 자급 대출은 군 복무 완료 후에만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농업경영체 종합정보망(www.agrix.go.kr)을 통해 신청하고,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포함한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해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전문 평가기관의 평가를 거쳐 전북도 심사위원회에서 지원 대상자를 선정한다.

/남원=김기두 기자

순창군, 도내 지방세 징수 우수 시 · 군 평가 '최우수'

순창군이 전북특별자치도가 실시한 2024년 하반기 지방세 징수 실적 우수시군 평가에서 최우수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군은 이번 최우수 기관 선정에 따라 부상으로 특별조정교부금 1,100만원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는 도내 14개 시군을 대상으로 세수 규모에 따라 3개 그룹으로 나누어 하반기 중 지방세 징수율, 세수인장률 및 공매실적 등 총 8개 지표에 대한 추진 실적을 종합하여 평가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군은 그동안 안정적인 지방세수 확보를 위해 읍면과 합동으로 지방세 징수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체납지외의 개별면담을 통해 맞춤형 분할납부 유도 등의 노력을 기울여 왔다.

/순창=이양원 기자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전주매일 캠페인

춘향전의 무대

남원 광한루

광한루는 조선시대 이름난 학의정승이 남원에 유배되었을 때 지은 것으로 최윤권 장동무(廣通樓)라 불렀다고 한다. 장한루(廣漢樓)라는 이름은 세종 16년(1434) 정인지가 고쳐 세운 뒤 바꾼 이름이다. 지금 있는 건물은 정유재란 때 불에 탄 것을 인조 16년(1638) 다시 지은 것으로 부속건물은 경조 때 세운 것이다.

규모는 앞면 5칸·옆면 4칸이며 지붕은 옆면에서 볼 때 여덟 팔(八)자 모양을 한 팔작지붕이다. 누마루 주변에는 난간을 둘렀고 기둥 사이에는 4면 모두 문을 달아 놓았는데, 여름에는 사방이 트이게끔 안쪽으로 질 수 있도록 해 놓았다. 또한 누의 동쪽에 있는 앞면 2칸·옆면 1칸의 부속건물은 주위로 툇마루와 난간을 둘렀고 안쪽은 온돌방으로 만들어 놓았다. 뒷면 가운데 칸에 있는 계단은 조선 무기에 만든 것이다.

춘향전의 무대모도 널리 알려진 곳으로 넓은 인공 정원이 주변 경치를 한층 돋우고 있어 한국 누정의 대표가 되는 문화재 중 하나로 손꼽히고 있다. <출: 문화재청 제공>